



팔당호 생태학습선

- 팔당호 생태학습선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 (경기 하남 소재)에서 시민들의 팔당호 생태 체험을 위해 도입한 45인승의 선박입니다.
- 경기 양평군 한강물환경연구소 선착장에서 승선하실 수 있으며, 매주 주중 오후 1시 30분에 1시간 코스로 운항합니다.
- 초등학생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요금 없이 선착순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(4~11월 운영)



체험코스



체험내용
팔당호 생태체험 및 교육, 수질측정체험 등

예약안내
한강유역환경청, 생태체험 통합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생태학습선 예약신청 배너 클릭

찾아오시는 길
- 주소 :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길68번길 42 한강물환경연구소 (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27)
: 선착장으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.
- 대중교통 이용 시 : 양수역에서 하차. 남부역 출구로 나온 후 도보로 물레길 혹은 자전거길 이용 (약 30~40분 소요) 거리 : 총 2.2km

문의전화 : 031-790-2540, 2442



팔당호(湖)

[생태체험프로그램]



- 생태학습선 운영 알림 -



수도권 2500만 시민의 생명수,

팔당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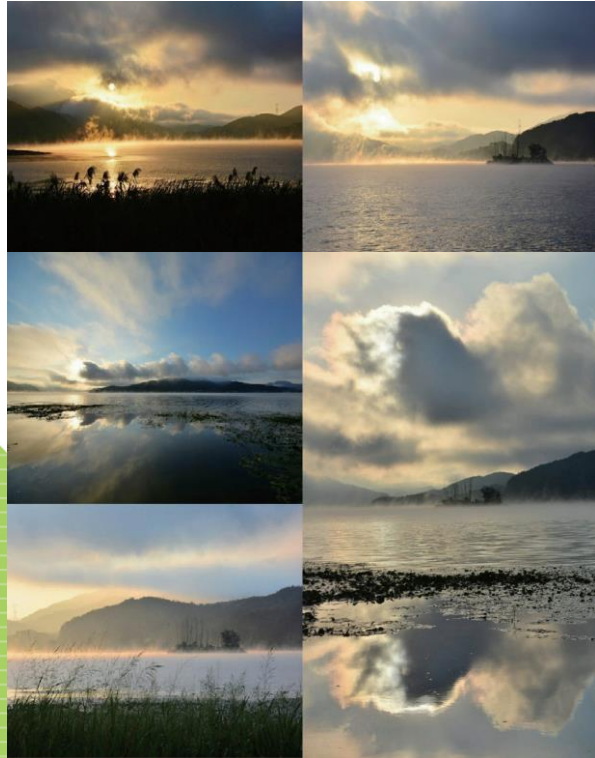


팔당호?

경기도 광주시, 남양주시, 하남시, 양평군에 걸쳐 있는 총 저수량 2억 4,400만 톤의 거대한 인공호수로, 1973년 팔당댐이 완공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.

수도권 2,500만 시민의 상수원으로서 관련 법률들로 보호받아, 주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.

생태·자연보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생태 관광 명소입니다.



생태학습선으로 돌아보는

팔당호의 섬 이야기



1 족자섬



발자국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섬으로, 현재 관심 필요종인 민물가마우지의 최대 서식처가 되었습니다. 생태 학습선에서 새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생생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.

2 소내섬



팔당댐이 건설되어 수몰되기 전 큰 우시장이 있던 곳으로, 현재는 검정말, 마름, 생이가래, 어리연 등 다양한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가 되었습니다.

3 큰섬



남한강의 퇴적작용으로 인해 만들어진 섬으로 큰섬이라는 이름과 달리 무척 작은 크기의 아담한 섬입니다. 생태학습선 체험을 통해 섬 이름의 유래와 지금 크기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.

생태학습선으로 돌아보는

팔당호의 명소



1 양수리환경생태공원



상수원보호구역 내 아파트단지 건설부지 위에 조성된 생태공원으로, 정부·기업·주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토지매수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.

2 세미원



수련창포 등을 활용하여 강의 부유물과 중금속 등을 제거하는 자연정화공원으로, 아름다운 연꽃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.

3 두물머리



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어우러진다는 뜻의 두물머리는 옛날 뗏목을 타고 서울에 달기 전 머무는 포구였습니다. 현재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.